

아시아순방 힐러리 자켓

한인이 디자인

한인 디자이너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돌보이게 됐다.

지난 18일~22일까지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정치적인 성과와 함께 뛰어난 패션감각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한국을 방문했던 지난 20일에는 붉은색 자켓에 검은색 바지의 정장차림으로 돌보이기도 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입었던 붉은색 정장 자켓을 디자인 한 것은 베버리힐스에서 고급 의류 부티크 '수제나 베버리힐스(Susanna Beverly Hills)'를 운영하는 한인 수제나 정 포레스트 디자이너(작은사진).

그는 작년 9월 베팅 오바마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인 클린턴 국무장관의 옷을 디자인해 <본지 2008년 9월22일자 A-4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순방길에서도 클린턴 국무장관은 어김없이 정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입은 정장도 정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한국에서 입은 붉은색 정장 자켓에 대해서 정 디자이너는 "미국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자리일수록 화려하고 밝은색 옷을 입어 자리를 빛내곤 한다. 특히 가장 화려한 색깔인 붉은색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



Designer Susanna Chung Forest,
Founder of Susanna Beverly Hills

는 색"이라며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입은 정장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미를 강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들로 디자인됐다.

정 디자이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세계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울 뿐"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정 디자이너는 지난 2007년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선 후보에 나서기 위해 LA를 방문, 기금모금행사를 했을 때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